

# 지금까지 나온 어린이 성경

공동연구 : 심정택 김용상 최은희  
김시온 김현숙 김경화  
배선희 김성진 손삼권

## 1. The Amazing Book

저자 : John R. Kohlenberger III and Noel Wescombe

출판 : Portland, Oregon. Multnomah Press. 1991

### 1.1. 구성

이 책은 7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에서 47개, 신약에서 25개를 발췌하였다. 책의 두께는 본문이 약 200여 페이지이다. 어린 독자들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이야기들은 흥미 있고 유익한 것이 많다. 어린이들이 친숙하도록 동물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하여 성경을 도입하고, 질문을 한 후에 답을 찾도록 이끌어 준다. 성경의 주요 단어는 색상을 넣어 다시 반복하도록 하여 성경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삽화를 정밀하게 넣었고, 동물 그림을 천연색으로 하여 지루하지 않게 꾸몄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기초적인 읽기 공부가 되어진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췌를 하였고, 성경의 연대 순을 따랐으므로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성서의 시대적 감각을 알게 하였다.

### 1.2. 특징

이 책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기에 적절한 성경의 선택과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어휘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적절한 선택(역사와 율법, 시와 지혜, 복음과 행위들, 서신과 예언들로부터 선택)과 성경의 연대

순으로 편집되었으므로 역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단어는 따로 설명을 함으로 성경의 기초와 신학적인 어휘를 공급합니다. 책의 뒤쪽에 소사전의 알파벳 순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칼라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요 어휘를 같은 칼라 색상으로 표기하여 찾기 쉽도록 배려하였다. 동물을 도입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므로 흥미를 돋우고 세밀한 삽화는 해당 연대 당시의 이미지를 갖게 하여 상상력을 키워주고 있다.

### 1.3. 분석

72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어린이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기 전에 성경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 준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린이가 혼자서 보기에는 많은 양이다. 책의 구성이 도입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질문의 형태를 반복함으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고 연대적인 흐름을 잘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반복되므로 어린이들이 지루해 하며 수동적이 되기 쉽다.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연대순을 따랐다는 것은 성인들에게는 그 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에서 어린이들이 장소와 연대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연대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1.4. 방향 제시

72과는 1주일에 1과씩 공부를 한다면 약 18개월(1년 반)이 소요된다. 과의 수를 조정하여 52과로 하여 1년 단위로 하였으면 좋겠다. 혹은 신약, 구약으로 구분하여 2권으로 분권하므로 3년 시리즈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되겠다.

각 과의 방식을 도입, 성경말씀, 질문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묻게 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삽화를 자세함으로 도움이 되는데 형태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로 하여금 그리도록 하면 흥미를 돋울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갖도록,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 책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활용한다면 삽화를 이용하여 상상력을 키워주고 본문을 찾게 하여 읽고 느낀 점을 토의하며 질문을 통하여 정리해 줌으로써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의 이야기처럼 저자는(존과 노엘) 어린이들이 그들 스스로 성경 읽는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놀라운 책'을 발전시켰다. 많은 어린이들이 매혹적인 줄거리와 놀라운 그림으로 가득한 성경 이야기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무 흥미 위주이므로 성경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이 책들을 읽고, 갖게 함으로 그림들로부터 벗어나, 보다 어린 독자들에게 성경의 세계가 열리도록 돕는 책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독과 듀이, 리키와 립버의 조그마한 도움으로 어린이들이 어디서나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기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한글을 깨우친 유치원생, 초등학교(4학년까지)의 성경 읽기 교재로서 출판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심정택, 충주제일교회)

## 2. Children's Bible: Words of Wisdom series

출판 : Hong Kong Bible Society. 1993.

### 2.1. 구성

Children's Bible은 전체 7권으로 매 권은 14개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전체 98개의 제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각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 그리고 말씀들로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짧은 문장으로 엮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 이유는 한 복음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의 내용과 저 복음서의 내용을 병행하여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권은 예수의 탄생 배경과 사역의 시작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2권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볼 수 있다. 3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비유와 증언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4권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열거하고 있다. 5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 6권은 모두 비유의 말씀들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7권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 2.2. 특징

Children's Bible의 특징은 알기 쉬운 영어 문장으로 쓰여져 이해하기 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림만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림으로 말씀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복음서의 내용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지만 주제별로 각 권마다 엮은 역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면 두께가 매우 큰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 성경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각 권마다 14개의 내용만을 수록하여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없으나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린 독자들이 읽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한글 개역 성경이 어린이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문체를 극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 2.3. 분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매 내용마다 적용 질문을 한가지씩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별해서 마지막에 써 놓는다면 어린이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림이 화려하고 걸모양만을 보아서는 동화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동화책처럼 그냥 상상의 이야기로 취급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 성경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읽고 나누고 공부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 주를 달아 뜻을 해석한다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가 하는 도움의 설명이 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이라 생각했다.

## 2.4. 방향 제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영어 성경에 대한 연구와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하기 쉽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이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부모와 교사가 더욱더 이 성경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나누는 작업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용상, 청주선교교회)

## 3.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for Children

출판: Zondervan Publishign House. 1997.

### 3.1. 구성

이 성경의 대상은 4-8세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책의 구성은 1권으로 구약 58장과 신약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 1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목은 The World Begins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 2에서 9쪽까지 창조 이야기를 서술과 대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창조 이야기를 숫자와 그림의 상징으로 쉽게 나타내어서 이해하기 쉽다. 한쪽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대로 날짜의 숫자와 그림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따옴표로 나타내며 문장도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나타내었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구약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화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어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내용이 빠져 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하나님의 명령, 즉 아담에게

는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라는 것과 화와에게는 임신하여 해산하는 고통이 빠져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도 빠져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흥정하고 떠나는 이야기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빠져있다. 또한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빠져 있다.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는 것과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도 빠져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한 과정이 빠지고 모세의 탄생에서 바로 호렙 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는 내용과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내용도 빠져 있다.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제사법과 성막의 내용이 빠져 있다.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은 나오나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요나서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것이 안타깝다.

신약에서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예수가 삭개오 집에 유하신 일만 나타나고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삭개오의 변화된 내용은 빠져 있다.

### 3.2. 특징

이 책의 특징은 그림과 함께 더불어 표현한 이야기식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는 부분은 모두 대화식으로 되어 있고 문체도 간결하여 빨리 이해되도록 하였다. 어린이 입장에서 그림들이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속에 정확히 각인되어 성경이해에서 성경 기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영어 단어 선택이 쉽고 명확하여 내용 이해에 쉽다. 예를 들어 He walked with God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로 표현하여 그 내용이 쉽게 와 닿는다. 그리고 그림의 명암 처리 등 표정이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불 하나 머리털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그린 세심한 노력이 보인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의 그림이 인상적이며 홍해가 갈라지는 모양의 그림이 실감이 나도록 잘 그려져 있다. 또 물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만화로 그려서 실감이 나고 이해가 잘된다.

### 3.3. 분석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뽑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성경에서 굵직 굵직한 이야기임에도 빠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과 함께 함축된 내용으로 짧게 짧게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정작 그 이야기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빠지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화와를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내용도 빠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서 이 어린이 성경을 예배 시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정에서 읽거나 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접하고 친해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성경을 예배에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성경 이야기를 한 권에 다 함축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굵직한 이야기를 연구 중에 뽑아서 이 책의 그림과 숫자, 글의 방식으로 발간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짧게 이야기를 마치는 것보다는 들어가야 할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작 성경의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이 이런 책을 발간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나 성막에 대한 내용 선지자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그림과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어린이 성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만 따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만든다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그래야만 내용이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의 '어린이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된다.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 3.4. 방향 제시

대한성서공회에서 어린이 성경을 발간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어린이 성경에 적당한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방식의 성경을 만든다면 예수님을 좀더 친밀히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식의 내용만 성경에서 뽑은 것 같다. 용어는 아이들이 읽음에 동시에 머리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쉬운 단어들만 골라 사용한 노력이 보인다. 길게 늘어놓아 이해하는 데 헛갈리지 않도록 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림에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이들이 보는 그림이라 하여 대충 대충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자세하게 실감이 나고 표정이 그 이야기에 맞도록 그려져 있

다. 그리고 주변 배경에도 신경이 쓰여있고 유머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다. 그림이나 숫자를 사용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머리에 쉽게 들어오도록 힘쓰고 있다. 예배시간에 이 성경을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 설교시간에 크게 그림을 본 때 그리던지 OHP로 띄워서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장비가 된다면 실물 화상기나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로 대형 스크린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설교 준비할 때에도 쉬운 단어들어서 아이들의 언어에 맞추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함께 둘러앉아서 이 성경책을 들고 함께 읽어가면서 그림을 보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한결 쉽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더 쉽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 성경책을 들고 읽으며 그림을 보며 설명해준다면 아이도 아주 좋아할 것이다. 아빠와 엄마와 예쁜 그림의 재미 있는 성경책,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 이야기 중심과 그림 중심으로 강조되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나 우려된다. 책에서 본문에서의 메시지를 꼭 강조하여 확실히 심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나면 해설자나 선생님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최은희, 청솔선교 배움터)

## 4. 비디오 리뷰

### 4.1. The Animated Stories from the New Testament

제작회사 : Family Entertainment Network

소요시간 : 25분

#### 4.1.1. 구성

이 비디오 시리즈는 총 10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The King is Born, He is Risen, The Prodigal Son, The Good Samaritan, The Miracles of Jesus, Saul of Tarsus, John the Baptist, The Righteous Judge, Forgive us our Debts, Treasures in the Heaven 등이다. 총 10편 모두가 신약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주제들을 살펴볼 때 통일성이 엿보이지 않아 이 비디오

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다. 구성면에서 예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루지 않아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만 어린이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부수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 전개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성서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린이들이 흥미 있게 비디오의 내용에 빠져 볼 수 있도록 사건의 전개가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부분을 엿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성서 중심에서 벗어난 구성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 4.1.2. 분석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약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이 어린이들이 교회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게 없다. 다만, 성경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들을 각색한 부분들이 있어 사실성에서 벗어나지만 다양한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린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다. 한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첨가됨으로 인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어린이들이 놓치고 넘어갈 우려가 있고, 다소 지루함이 느껴진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래를 이용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도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기억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디오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것은 색채가 파스텔톤이라 그런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정서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주로 사용하는 색이 중성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어서 뚜렷함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산이나 절벽과 같은 거친 느낌을 표현할 때는 현장감이 떨어진다.

인물 표현에 있어서는 인물에 대한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인물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나 제스처가 성서적이지 못한 인물이 있어서 모방을 쉽게 하는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주게 될 위험이 있다. 건물과 같은 주위 배경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스케일이 작아 어린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활용 여부를 본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왜

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전개해 가는 가운데 성서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있고, 상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각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흥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 비디오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 공부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어린이 시기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같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무섭게 그들의 인식 속에 오래도록 자리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청소년 시절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중에 기억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분반 공부 때 활용할 시각적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래를 만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암기하게 하는 방법은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넓혀 주고 창작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

또한 이 비디오를 예배 시간에 활용한다면, 2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 그것이 설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다. 어린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설교시간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25분 짜리 비디오는 내용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게 하여 하나님과 어린이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비디오를 활용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먼저 구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비디오처럼 대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교육에 깨어 있는 부모가 아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자라고 나면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할 부모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교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경 비디오로 하는 성경 공부를 권장하거나 기독교 비디오점을 만들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기독교 백화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면 활용 가능하다.

이 비디오는 비디오를 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비디오를 보고 풀 수 있는 교재도 함께 제공되어 있어서 좋다.

#### 4.1.3. 방향 제시

먼저 비디오가 제작된 배경을 살펴볼 때 비디오가 없던 때에는 단지 성경을 가지고만, 좀더 발전되었다면 성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이에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도태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비디오라는 새로운 첨단 매체를 교회 안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

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성서 비디오를 제작할 정도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 비디오라는 이름에 맞는 비디오를 만들기보다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에만 중점을 두는 바람에 목적보다는 수단이 먼저 앞서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서 비디오를 만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왜 성서 비디오를 만들고자 하는가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성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종류의 비디오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상은 누구인가? 연령층의 분포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는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활용도에 따라서 예배시간 활용 가능한 설교대용이나 성경 공부용이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비디오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디오의 제작에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성서 비디오가 보편성을 가지고 어디서나 구입가능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하는 생각이다. 성서 비디오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생겨 어느 교회나 대여하여 볼 수 있고 다양한 교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직도 혜택받지 못하는 많은 개척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비디오 제작과 함께 앞으로 교회가 교회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시온, 대전중앙교회)

## 4.2. 비디오 “태초에”

제작회사 : 교육개발사

소요시간 : 56분

### 4.2.1. 구성

비디오 ‘태초에’의 구성은 다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담과 화와, 가인과 아

벨, 노아의 방주, 바벨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운명, 야곱의 열 두 아들, 요셉의 승리, 애굽사람 모세, 타오르는 불, 모세와 바로, 출애굽기, 돌에 새긴 계명, 이스라엘의 배신, 새로운 언약, 여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추방된 이스라엘인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의 해방, 사막의 예언자, 예수의 탄생 등 총 26편이다.

이 비디오는 1편에서 2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약의 내용은 단 한 편 '예수의 탄생'밖에 없다. 즉, 신약의 내용보다는 구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비디오의 주제들이 사건과 인물 중심이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주제들이 없다. 어린이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계셔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을 다루어 감동이나 깨달음을 수반할 수가 없다.

전개되는 사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한 편에 넣어야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어색함이 있다. 반면에 한 편에 끝나면 다음 편에 대해 예고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다. 매 편마다 '여우'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어린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내용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여우의 행동들이 성경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 많아서 자칫 성경 이야기가 아닌 여우가 주인공인 내용의 비디오로 어린이의 생각 속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 한글과 영어자막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2번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특히 영어공부라는 면에서 볼 때 반복학습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성경 이야기로 하는 영어공부라는 면에서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호의적일 것이다.

#### 4.2.2. 분석

내용면에서 성서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어린이가 비디오를 보았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 개의 비디오를 보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야기의 비중이 모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없다. 즉, 성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려다 보니 주제를 한가지의 핵심에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름으로 산만함을 주고 오히려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성서의 내용을 충실히 묘사함으로 이야기나 사건에 대한 어떤 덧붙임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비디오만 보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알 수 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가 힘들 것 같다.

단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 그대로를 옮겨 놓음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므로 단어의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장 전체를 바라볼 때나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본다. 또한 대사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아듣기가 힘들다. 책이라면 필요한 부분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지만 비디오는 그것이 번거롭고 이야기의 맥이 끊길 위험이 있다.

비디오의 색채는 어둡고 탁탁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금방 싫증을 불러일으키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리적으로도 우울함을 조장할 수 있어서 만약 주제가 기쁨과 환희를 느낄 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악한 역을 맡은 사람이 대체로 험상궂게 생겼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못생긴 사람으로 표현함으로 어린이의 인식 속에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 자신의 모습이 못났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얼굴 표정에서도 섬세함이 떨어져 표정을 보아서 그 상황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배경을 표현할 때에도 현장감이 부족하고 사실적인 표현에서도 조금 떨어진다.

예배 시간의 활용 정도는 기존의 예배 순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제한되어 있는 시간 때문이기도 하고 예배의 흐름을 비디오의 내용과 주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자의 만남인데 비디오라는 시각적인 매체로 인하여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어린이의 의식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비디오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되어져버릴 위험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활용한다면 다소 예배의 형식을 변형해야 한다.

그리고 분반공부 시간에 활용할 경우에 대개의 성경 공부가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이므로 선생님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통하여 학습하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해한 것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느끼고 이해한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현숙, 성광교회)

### 4.3. 비디오 “The Greatest Adventure Stories From The Bible”

제작회사: (주) 에덴 프로덕션

소요시간: 총56분 각 28분(한글, 영어)

#### 4.3.1. 구성

이 비디오는 구약 10편과 신약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구약에서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요셉과 형제들, 모세,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 삼손과 데릴라, 다윗과 골리앗, 요나, 사자굴의 다니엘, 에스더 왕비이며,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등이다.

이 비디오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사건과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어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의 구성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 예수님의 탄생, 부활, 기적을 다루고 있다. 구약은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어 10편으로 되어있다. 이 비디오는 마고, 데릭, 모키 세사 램의 탐험가가 우연히 시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된다. 성서 이야기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성서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성서 속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세 사람의 탐험가가 성서의 현장에 가서 성서 속의 주요 인물 중의 한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그들이 와있는 시대에 대하여 설명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많은 사건들을 직접 참여시켜 성서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아이들에게 전해 주고 중간 중간에 성서 속의 인물이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쉽게 설명해 아이들이 성서 속의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 사건이 일어나는 과거를 자주 반복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자칫하면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몇 편의 비디오는 너무 많은 부분이 설명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비디오가 우리말 녹음과 영어 자막본을 동시에 한 비디오에 실음으로 인해 성경교육뿐만 아니라 영어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비디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비디오가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가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을 알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각 비디오에 대하여 내용 요약까지 되어 있어서 비디오를 보는데 선이해를 제공해 준다.

전체적인 색채는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하여 배경이 칙칙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밝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가끔 색채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여 혐오스럽게 표현된 부분도 있으므로 색채의 조절과 그림의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피의 색깔이 너무 진하고 그림 표현도 이상하여 혐오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주인공의 세 사람의 눈이 너무 찢어진 눈으로 무섭고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그림이 섬세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려져 있어 디즈니 만화의 섬세하고 생동적인 그림에 길들어 있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더 섬세하고 생동적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 4.3.2. 분석

전체적으로 성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짧은 비디오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다보니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든다. 한 비디오에 많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 하기보다는 한가지 내용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화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경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성경구절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 성서의 의미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성경구절이 아이들에게는 딱딱하게 들리고 만화의 대사로 사용하기에는 어색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구절을 대사로 인용할 때는 성서 내용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사람이 성서 탐험이 탐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성서 탐험 속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느낀 점을 나누는 내용을 넣어 준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비디오의 내용적인 정리가 더욱 잘 될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비디오를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영어 자막본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성서 이야기와 더불어 영어공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녹음이 끝나고 영어 자막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영어공부가 효과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어 자막본을 영어녹음을 하고 한글자막을 넣어준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시간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한정된 예배시간에 비디오도 보여주고 비디오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이용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등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공과공부 시간에 이용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공과공부 시간에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단순히 듣는 교육이 아니라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책으로만 배우는 시간보다는 더욱 흥미롭고 효과적인 공과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배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제작 할 때에 핵심적인 성경 내용을 넣으므로 하여 시간을 단축하여야 예배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화, 대전중앙교회)

#### 4.4. 비디오 “The Animate Stories From The Bible”

제작회사 : AVACO

소요시간 : 25분

##### 4.4.1. 구성

이 비디오는 구약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Abraham and Issac, Samuel, Elisha, Nehemiah, Joseph in Egypt, Daniel, David, Ruth, Elijah, Esther, Solomon, Moses로 구성되었다. 어려서부터 배워 온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사무엘, 엘리사,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다윗, 룻, 엘리야, 에스더, 솔로몬, 모세를 다루고 있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 단순히 인물만 다룬 전기문 같은 느낌이 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인물(주인공)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 비디오의 색채는 대체적으로 선명한 원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시각에 흥미를 줄 수 있다.

##### 4.4.2. 분석

그 이유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단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을지문덕 같은 위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보면, 요셉이 고백했던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빠져 있는 이러한 성서 만화 비디오는 위인전을 다루는 일반 만화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어 줄 때, 어린이들로부터 ‘나도 ~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보다는

‘나도 ~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고백을 유도 할 수 있다.

성서에서는 설명되어지기 힘든 부분을 ‘그림’이라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인물의 심리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화난 모습, 질투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등).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사라와 하갈이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과 이스마엘이 동생인 이삭을 시기하여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서 절정이 되는 부분을 강조해준 것도 좋다. 산 제사로 드리워질 이삭이 자신이 죽을 칼을 가지고 오는 모습 중에서 칼과 이삭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 이러한 것은 어린이들로부터 순간적이거나 아브라함의 갈등과 아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분반공부 시간이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25분이나 되는 비디오를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주위의 여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 만화 비디오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 교회에 국한될 것 같다.

분반공부보다는 예배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실정에는 더욱 적합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예배시간 1시간 중에서 25분을 소요한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 주간이 아니고서는 활용하기가 힘들다.

일반 만화비디오가 손쉽게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서 만화 비디오도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성서교육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즉, 가정과 교회에서의 성서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 4.4.3. 방향 제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를 하는 비디오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어린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하여 신선함을 주거나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서의 이야기 구성을 재배열해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총리가 된 요셉’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첫 장면은 바로 왕의 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재배열의 문제는 어린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란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인물 위주로 할 것인가, 사건 위주로 할 것인가, 인물과 사건을 모두 다룰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용 전개에 있어서 산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림면”에서 보면 일단 그림은 어린이들에게 시각적 흥미를 주는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듣고 읽는 성서 말씀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림’이라는 시각자료를 통해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물들의 성격, 기분상태, 갈등 관계 등을 그림으로 섬세하게 묘사해 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첨가’, ‘강조’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구성면”에서 보면 주제에 적당한 구성을 선택해야 한다. 즉 인물을 중심으로 해야만 주제의 전달이 좋은지, 아니면 과정을 중심으로 해야만 이야기의 흐름이 좋은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구성이 잘 되어야 내용의 산만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성서 만화 비디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비디오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현재 우리 교회의 실정으로는 예배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디오를 제작할 시에는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시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교회성서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한 인물(하나님, 주인공)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본 이야기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간단한 경건의 내용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

(배선희, 서대전교회)

## 5. 성경 CD-Rom

제목: CHILDREN'S BIBLE STORIES

### 5.1. 구성

이 CD는 COMPTON'S NEWMEDIA에서 1996년에 윈도우95, 윈도우3.1, 매킨토시에서 운영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최소 사양은 486DX/50MHZ이고 윈도우 3.1이상

에서 실행되며 DOS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680×480의 256 칼라에서 실행되고 그 이상의 16비트 칼라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행되는 속도는 빠르지만 현대의 높은 그래픽 카드 사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D는 아이들이 보기에 편하고 친근한 느낌을 가지도록 그림을 부드럽게 그려 넣었다.



그림 1

CD를 넣었을 경우 아래 [그림1]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특별히 윈도우의 탐색기를 실행시켜서 CD를 인스톨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인스톨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CD를 실행시켜 보면 인스톨할 필요 없이 CD에서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2]와 [그림3]은 차례에 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나타난다. 구약성서와



그림 2

신약 성서를 나누어 놓았고. 여기를 살펴보면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두루말이 형식으로 성경이야기 진행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의의 한 이야기를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게임을 만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2]는 이 CD가 구약 성서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하

였다. 여기에는 천지창조, 에덴동산, 노아의 방주, 바구니 속의 모세, 약속의 땅, 홍해의 갈라짐, 십계명, 삼손과 데릴라, 다윗과 골리앗, 여리고의 성벽, 드보라의 노래, 요나와 고래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서 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림 3

[그림3]에서는 신약성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 비유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으며 천사의 방문, 구유 안, 양치기와 현명한 사람, 산 위의 예수, 빵과 물고기, 예수의 물위의 걸음, 선한 사마리아인, 마리아와 마르다, 방탕한 아들, 최후의 만찬,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림2]와 [그림3]에서는 아이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그리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구성이 기존에 나와있는 CD를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하게끔 접근하는데 비해 성서 이야기와, 하나의 게임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 단순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한번 쓰고서 더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다.

[그림4]는 구약성서의 이야기 중 요나의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다.



그림 4

주변에 귀여운 동물들을 그려놓고 두루마리 속에 요나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여러 가지 기능(소리, 도움말 등)의 설정 두루마리가 있으며 다시 들을 수 있는 반복 기능이 우측 상단에 자리잡고 있다. 글씨와 함께 소리를 제공하여 글을 읽어주며 배경소리는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말이 옆의 화살표를 눌러야만 넘어간다. 다음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동 스크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키보드 또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구약 성서 이야기의 모든 배경 그림은 위와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 하나

의 그림으로 통일이 되어있어 단순하다.



그림 5

[그림5]는 GAME을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그림이다. 게임의 방법은 4개의 두루말이를 4명의 게임자가 주사위 놀이를 통하여 먼저 다 모으면 승리를 하게 된다. 게임자의 모양을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퀴즈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이야기를 복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말판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이 변화하므로 게임을 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다.

## 5.2. 분석과 방향 제시

성서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꾸며 놓은 것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 식으로 풀어쓰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그림4]의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이방 백성(니느웨)을 무서워해서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성경에 의하면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싫었다.), 성서에 나오지도 아니한 고래를 등장시키고 있다(성서에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라고 표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며, 더 나아가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CD는 성서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꾸며 놓았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 식으로 풀어쓰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그림4]의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이방 백성(니느웨)을 무서워해서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성경에 의하면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싫었다.), 성서에 나오지도 아니한 고래를 등장시키고 있다(성서에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라고 표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성에 있어서 단순함 감이 있다.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마우스 버튼으로 책장을 넘기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자칫하면 상실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배경 그림 속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숨겨 놓아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였을 때 보충설명을 해 주든지, 캐릭터를 등장시켜 이야기식으로 설정하여 학습자의 재미와 지식을 전달하는 배려를 해서 다양성을 주었다면 더욱 좋은 학습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셋째, 소장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조금 아쉽다. 대개의 경우 이 CD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학습자의 보호자들에 의해서라 할 때, 조금 더 많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단순히 동화를 읽어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다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소장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CD를 단어 공부라든지, 색칠하기, 숨은 그림 찾기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분명 더욱 오랫동안 소장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다.

(김성진, 빈들교회)